

재활보조기구 지급 효율화 방안

1. 검토배경

- 출연금 지속 감소('17년~) 및 축소에 따른 재료비 조기 소진과 보조기 공급 중단('19년 9월) / 보조기 지급 우선의 재료비 집행으로 자체 연구사업 수행 위축
- 절단 재활 서비스의 병원 내 프로세스 통합 필요 제기, 절단재활 서비스 질적 향상과 인천 병원 의지 보조기 진료 특화전문화를 위한 병원내 보조기 지급 기능 미흡

2. 보조기 지급 개선방안

- 회계 편성 변경 ; 보조기 지급 분야를 의료사업 회계로 편성
- 보조기 지급 이관 (제작인력 및 소속 병원으로 배치)

<제작기사 재배치 계획(안)>

구분	합계	연구소(본원)	병원						
			인천	안산	대구	동해	창원	순천	대전
현인원	21명	10명 (휴직 1명 / 전환 전문직 1명 / 제작기사 공무직 2명 포함)	1 (공무직)	1	1	1	3	2	2
재배치계획(안)		-6	+3	+1	+1	+1			
재배치인원	21명	4명 (전환전문직 1명 제외시 3명)	4명	2명	2명	2명	3명	2명	2명

※월케어실(재활공학기사 공무직) 1명 제외 21명/연구소 필수인력5명필요

- 제작기사 22명 중 연구시제품 제작 등 필요인력(5명)을 제외한 의지보조기 제작인력(17명)을 소속 병원으로 배치(재활공학기사 1명을 제외 21명)
- 연구소 필수인원 5명 및 권역별 서비스 센터 3명 추가인력 재배치시, 본원인력 10명 중 (연구소 본원5, 안산1, 대구1, 동해1)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인천병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전환 전문직포함 최대 2명)임

<연구소 본원 제작실 업무 인력현황>

구 분	직무지원 신속대응반	실리콘 의수실	의지 제작팀	의수 제작팀	보조기 제작팀	의지보조기 제작 및 행정업무	제작 실장
현인원10명 (전환 전문직 1명 / 휴직 1명 / 공무직 2명 포함)	1명 (전환 전문직)	1명	2명	2명	1명 (휴직)	2명 (공무직)	1명

※ 휠체어실(재활공학기사 공무직) 1명 제외

3. 기대효과

- 연구소 출연금 삭감에 따른 보조기 공급 불안정성 해소
- 연구 및 연구지원 분야 산재 기금 투입으로 첨단 직무지원 보조기구 개발 등 연구소 본연의 사업 수행에 충실
- 병원내 일원화된 보조기 지급 체계 구축(보조기 처방-제작-검수)으로 절단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절차 효율화 도모

- 연구소 제작실 현황 -

1. 인천 병원 절단재활서비스 및 보조기 지급 미흡

- 직무지원 사업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 센터 확대 운영으로 인한 연구소 본원 인력 재배치로 인한 인원감소가 주요 원인 (권역별 서비스센터 및 실리콘 의수실 인력 확충 없이 개소 시설 장비 미흡)

<연도별 제작실본원 현황>

'19년 ~ '20년			
22명 (정규직 17명 / 공무원 4명 / 전환전문직 1명)			
구분	본원	권역별 서비스센터	
1	신무현	권영진	창원('02년5월)
2	김훈선	김현중	창원
3	정영규	차민국	창원
4	손진호	박호동	순천('02년6월)
5	김수동	임성은	순천
6	유효중 (실리콘의수실19년1월)	오송열	대전('02년7월)
7	손민지 (공무직)	정창희	대전
8	천성민 (공무직)	양철호 (공무직)	인천('18년5월)
9	조혜정 (휴직)	조성문	대구('18년3월)
10	이규봉 (전환전문직)	김순종	안산('18년1월)
11	유재선 (휠체어실) (재활공학기사,공무직)	전영만	동해('02년10월)

2. 아급성기 절단재활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천병원 의지 보조기 진료 전문화를 위한 병원내 보조기 지급 기능 향상

- 출연금 지속 감소로 인한 보조기 지급을 의료 사업회계로 편성하고 제작기사를 인천병원 소속으로 분산배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 재활보조기구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활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련된 의지 보조기 제작기사 및 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아급성기 환자와 유지기 환자와의 차별화된 수가(시스템)적용이 필요

3. 기존 처방은 유지기 산재환자의 물건에 대한 수가만 있는 상황

- 현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도는 유지기 환자의 재활보조기구 공급에 관한 수가 제도만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지급하는 보장구 건수 증가 및 의지재료비 단가 상승으로 재료비 지출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 보조기구 중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부품가격이 산재 수가보다 높은 실정으로 질적 서비스의 어려움
- 인천병원 아급성기 환자의 절단재활에 필요한 임시소켓 및 입원 훈련 기간 동안의 재활보조기구 제작은 단단부 변화로 인한 추가제작 및 재제작, 소켓수정, 정렬조절, 기타 서비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
- 제작기사의 모든 담당 업무의 처치 및 행위에 대한 제도적 수가 등이 전무한 상황임.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인천병원에서 환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 시착 및 제작요구 등으로 제작 지연 및 업무량 증가
- 제도적 장치(아급성기 및 집중재활치료에 필요한 수가 등)가 없는 상황에서의 병원내 보조기구 서비스 지급 만족은 불가능한 상황

4. 시설 및 장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

- 인천, 안산의 경우 인력외 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자체 제작업무 수행 어려움
- 인천병원으로 제작실 이관시 시설 및 장비가 실질적으로 제작업무 기능 가능한 정도의 예산 반영 필요

5. 인천병원 제작기사 4명 운영으로 절단재활보조기구 서비스 미흡 해결

- 본원 10명으로도 미흡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가 인천병원 인력 4명 이동시 해결 되는지
- 인천병원 4명 이동시 본원에 3명 밖에 제작기사가 남지 않는 상황(전환전문직1명 제외)

6. 인력부족으로 증원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추가인력 증원 요구 및 부족한 인원으로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
- 협업 할수 있는 인력의 병원 재배치로 인한 인력 추가 감소
- 재활 보조기구 서비스를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를 통한 추가 인원감소로 해결 되는지

<2019년 제작공급 건수>

구분	'19년	비교		
연구소본부 제작실	6,371	인원 (협업)	10명	1,000건 이상 시너지 건수 발생
권역별 서비스센터	5,284	인원 (7개소 분산)	11명	

※직무지원407건제외

7. 인력 배치문제

- 제작기사 중 누가(어떤 기준으로)배치 / 제작기사 선택 존중

8. 연구소 처방권한 없음

- 인천병원 공학연구소 제작기사 역할
-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 공학연구소 제작업무 운영(아급성기, 유지기, 직무지원 및 직무촉진, 신속대응반)

9.실리콘 의수실/휠체어 수리 센터 운영

-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리콘 의수실 운영문제
-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문제

10. 공무원 처우개선

- 정규직화 (5급 경력인정 발령)

11. 병원소속으로 배치 문제시

- 재활보조기구 지급효율화 방안으로 인천병원 소속으로 배치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
(업무량 증가로 인한 보조기구 공급 지연,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한 보조기구 지급 미흡
시 해결 방안 등)

※ 2019년 의지보조기 지급분야 손익 ▽3억1천200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수익	비용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손익	비고
합계	3,674	3,986	2,739	1,132	61	▽312	
의지보조기	2,979	3,025	2,103	872	50	▽46	
직무지원	695	961	690	260	11	▽266	

